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 1997년도 표어 ☉

“화평케 하시는 그리스도”(엡2:4)

☉ 생활지침 ☉

- 1.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자
- 2. 그리스도의 평화를 나누자
- 3. 성령이 주시는 화평의 열매를 맺자

발행인: 이종윤 발행처: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737-3 전화 (02) 517-7651 ~ 5 팩스 (02) 512-1225

비전2000

“천국복음을 만민에게”

오늘 찬양예배 시 발대식

’97비전2000운동 발대식이 찬양예배 시 거행된다.

오늘 시작하는 비전2000운동은 교회설립 제 6주년 기념일인 11월 23일 승전감사예배를 드리기까지 50일간 전개된다. 이 기간 동안 온 성도들은 50일 연속기도회와 전교인합심기도, 금요 심야기도회 등 특별기도운동과 노방전도, 축호전도, 찬양전도집회 등을 통한 전도에도 힘쓰게 된다. 아울러 잃은 양 찾는 일에 힘을 모으게 되며 교회학교와 다락방에서는 배가운동을 펴게 된다.

또한 이 기간 중에는 성경암송대회, 새 예배당 건축을 위한 바자 등 교회설립 6주년 기념행사도 함께 진행하게 된다.

’97비전2000운동 기간 동안 온 성도가 함께 기도할 공동기도제목은 다음과 같다.

기도제목

- 1. 영혼 사랑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 2. 가족, 친척, 이웃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게 하소서.
- 3. 성령의 도우심으로 마음의 문, 전도의 문이 열리게 하소서.
- 4. 잃은 양들을 찾게 하옵시고 각 기관마다, 다락방마다 배가되게 하옵소서.
- 5. 민족복음화와 세계선교의 센터가 될 새 예배당 건축을 속히 이루어 주옵소서.
- 6.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한국교회가 새로워지고 부흥되게 하옵소서.
- 7. 북한 땅에도 전도의 문이 열리게 하옵소서.

’97비전2000운동의 표어는 “천국복음을 만민에게”이며 주제는 요한복음 4장 35절 말씀을 좇아 “눈을 들어 이웃을 보라 회하여 추수하

게 되었다”로, 주제찬송은 찬송가 268장 “온 세상 위하여”이다.

오늘은 비전2000운동 기간 중 전도할 대상자를 적은 태신자카드와 50일간 연속기도회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게 된다.

비전2000 및 교회설립 6주년기념 주요 행사

일자

행사

- 10월 5일 비전2000운동 발대식(50일 연속기도회 시작, 태신자카드·연속기도회신청서 제출)
- 10월 12일 교구별 노방·축호전도
- 10월 19일 교회학교별 노방전도
- 10월 23~25일 새 예배당건축을 위한 열린 바자
- 10월 26일 새가족환영회
- 11월 2일 전가족 만남의 주일(이삭줍기작전)
- 11월 9일 기관별 노방·축호전도, 전교인 성경암송대회
- 11월 16일 전교인 전도대행진, 추수감사 음악예배
- 11월 23일 교회설립 6주년 기념일, 추수감사절(성찬식) 전체 만남의 주일
승전감사예배(승전보고, 전도상 시상)
집사 및 권사 임직식
- 11월 30일 새가족환영회

비전 2000조직



- 1. **진행분과** = 이성득 김영준 하영수 탁경준 신용식 서춘식 최형렬 김규태 이은희 김숙자 김양숙 최양혜 김경아 이종심 금용숙 강운숙 박은미 최미아 강신덕
- 2. **홍보분과** = 김명현 이영기 박두호 김규태 정동호
- 3. **전도분과** = 김정현 김태기 임훈규 박귀환 이성득 민영수 이순환 김명현 오정수 정병무 성준경 홍정호 김광신 이영기 윤봉준 노문환 박철훈 최종시 홍정선 김세제 김일용 조정식 이관규 임상현 각 지역장
- 4. **기도분과** = 민영수 전인화 이영자 우선자 유복달 박경희 윤문자 김동호 김명숙 김중자 여옥기 이민화 전춘자 김중복 최무순
- 5. **교육분과** = 서춘식 이관규 윤성남 신용식 박두호 안의경 김세제 이변생 임상현 김일용 박두영 하영수 이남북 이성애 현경옥 최일춘 신동기 김정희 장윤경 주경자 원복순 유복달 김선미 장동업
- 6. **안내분과** = 이순환 최종시 안내위원 차량부 위원
- 7. **재정분과** = 오정수

교회학교 소식

탁아부 특강·학부모좌담회

9일(목)과 28일(화)에

탁아부에서는 9일(목) 오후 8시 탁아부실에서 교사들의 영적 향상을 위한 교사 특강을 실시한다. 강사는 이종윤 목사이다.

한편 탁아부에서는 28일(화)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 30분까지 학부모초청 좌담회를 갖는다. 이날 이영희 집사(탁아부 지도)를 강사로 학부모를 위한 강의가 있고 조숙경선생의 진행으로 아기들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이다.

강해설교 여호수아서

13장 1절 ~ 15장 54절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의 남은 것은 매우 많도다 이 남은 땅은 이러하니 블레셋 사람의 온 지방과 그술 사람의 전경 곧 애굽 앞 시홀 시내에서부터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북방 에그론 지경까지와 블레셋 사람의 다섯 방백의 땅 곧 가사 사람과 아스돗 사람과 아스글론 사람과 가드 사람과 에그론 사람과 또 남방 아위 사람의 땅과 또 가나안 사람의 온 땅과 시돈 사람에게 속한 므아라와 아모리 사람의 지경 아벳까지와 또 그발 사람의 땅과 동편 온 레바논 곧 헤르몬 산 아래 바알갓에서부터 허맛에 들어가는 곳까지와 또 레바논에서부터 미스르보타 임까지의 산지 모든 거민 곧 모든 시돈 사람의 땅이라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나의 명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을 되게 하되 너는 이 땅을 아홉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을 되게 하라 하셨더라 므낫세 반 지파와 함께 르우벤 사람과 갓 사람은 요단 동편에서 그 기업을 모세에게 받았는데 여호와와 중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은 이러하니...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실로에서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제비뽑아 나눈 기업이 이러하니라 이에 땅 나누는 일이 마쳤더라”(13:1 - 15:54)



이종운 목사

땅을 나누라

여호수아서의 내용은 크게 가나안 정복(1 - 12장)과 땅의 분배(13 - 24장)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갈렙의 말에 따라 추론컨대 가나안을 정복하는 데는 약 7년이 걸렸습니다(14:7 - 10). 가나안 정복이 끝났을 때 여호수아는 나이가 많고 늙었다고 했습니다(13:1). 그때 큰 문제는 삼림이 무성하고 아직도 점령해야 할 남은 땅이 매우 많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지파를 따라 땅을 나누어 주고 그곳에 거주하면서 가나안을 정복하도록 하셨습니다.

1. 요단 동편에서의 땅의 분배

13 ~ 17장에 나타난 분배는 요단 동편에 르우벤, 갓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에게 나누어졌습니다.

①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3:8 - 33)는 모세에 의해 이미 결정된 지파들입니다. 그들이 요단 강을 건너기 직전 즉 요단 동편이 가축에 적당한 곳이어서 가축과 가족을 남겨 놓고 자기들이 요단 강을 건너 가나안 땅을 정복할 터이니 이 땅을 자기들에게 달라 하므로 모세가 조건부 허락을 한 것입니다(민32장).

② 유다 지파(15:1 - 63)에게 남쪽 지방이 분배된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유다는 다스리는 권한을 받았습니다. 왕족이 유다에게 나오고 마침내 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다 지파에게 왔습니다(창49:8 - 12).

③ 에브라임과 므낫세 반 지파(16:1 - 17:18)에게는 토지 분배 과정에서 므낫세의 현손 슬로브핫의 다섯 딸에게 중요한 땅이 배분되었습니다(17:3 - 6). 대개 아들들에게 주어졌으나 슬로브핫은 아들이 없었습니다. 이들은 모세에게 왜 우리 아버지의 몫이 없느냐고 항의하여 아들은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들 요구가 옳다 하시어 이를 허락했습니다. 이같은 일들은 이미 모세의 글에 기록된 것을 근거로 했습니다(수17장, 민27:4).

2. 실로에서의 땅의 분배

이스라엘 진은 길갈에서 실로로 옮기고 남은 땅을 7등분하여 제비를 뽑아 나누었습니다.

① 베냐민 지파(18:11 - 28)는 에브라임과 유다 사이에 있는 영역을 받았습니다(수18:11). 큰 지경은 아니었지만 중요한 곳들이 포함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나뉠 때 베냐민은 남 유다에 속해 얼마 동안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바르게 보존했습니다.

② 시몬 지파(19:1 - 9)는 자신의 영토를 받지 못했습니다. 유다 땅 안에 땅을 할당받았습니다. 시몬은 레위와 함께 제정 사람들을 살육한 이들입니다. 야곱은 그들에게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홀으리로다”(창49:7)라고 예언했고 예언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레위는 지파별 할당이 없었습니다. 레위는 다른 지파들의 영토에 문자 그대로 흩어졌습니다. 레위는 제

사장이 되고 따라서 그들의 흩어짐은 다른 지파와 자신들에게 복이 되었습니다.

④ 스불론 지파(19:10 - 16)는 무것도 평지 북편에 위치했습니다. 갈렙 산의 동편입니다.

④ 잇사갈 지파(19:17 - 23)는 스불론 동편에 므낫세의 북편에 있었습니다. 야곱의 첫째 아내 레아의 소생인 스불론과 잇사갈은 야곱의 이혼 번째와 열 번째 아들입니다. 어려서 함께 성장하면서 가깝게 지낸 것으로 영토도 이웃하게 되었습니다.

⑤ 아셀 지파(19:24 - 31)는 북쪽에 있는 갈렙 산에서부터 시돈까지 지중해 연안에 위치했습니다. 아주 기름진 땅이었으나 이방 도시들의 영향으로 도덕적으로 부패했고 특히 두로와 시돈이 그러했습니다.

⑥ 납달리 지파(19:32 - 39)는 아셀의 영토와 병행해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메시아 예언 중 납달리와 스불론 즉 이방의 갈릴리가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사9:1 - 2).

⑦ 단 지파(수19:40 - 48)는 비교적 남단에 위치한 단의 영토는 바다와 예루살렘 사이에 있습니다.

이 모든 분배를 마친 후 여호와와 명대로 여호수아의 구한 성읍 에브라임 산지 담낫세라를 여호수아에게 주었습니다. 이 일은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실로에서 회막 문 여호와 앞에서 이와 같이 제비를 뽑아 땅을 나누었습니다(19:51). 이것은 군사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매우 만족스런 분배였습니다.

3. 관리의 책임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하나님 백성 섬기는 일을 끝까지 감당한 여호수아는 신실했습니다. 여호수아는 90세가 넘어 늙었으나 가나안 정복의 대업을 완수할 때까지 계속 전진했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가나안 강적들을 모두 물리치고 모든 정복의 대업을 완수할 때까지 그는 자기를 위한 땅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는 땅을 나누고 여러 지파에게 소유케 함으로 백성들로 하여금 자기의 책임이 무엇인지 알게 했고 그 안에서 그들이 책임있게 살도록 격려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에서 달란트를 받은 이들은 각각 자기에게 주어진 은사를 활용할 책임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자기 달란트 사용을 거부한 사람은 심판을 받고 저주를 받았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스라엘처럼 자기에게 주어진 것을 소유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는 데 활용해야 합니다.

이 세상과 그 나라들은 이미 그리스도 예수께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통치를 전하기 위해 우리는 세상에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께서 내게 준 사람들”이라고 하시며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고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영원히 다스리십니다.

목회자신학세미나 지상중계

“교회와 국가”

이 글은 9월 29일 목회자신학세미나에서
이회창 신한국당 대선후보와의 질의 응답 내용을 발췌, 요약한 것입니다.



▶이회창 후보: 우리 사회에 오늘처럼 종교의 힘이 절실히 요청되는 때는 없었을 것입니다. 병든 인간의 마음을 치유하고 올바른 사람이 되게 하는 것... 그래서 이 사회에 사랑과 정의가 넘치고 자유와 평화의 질서를 세우는 데에는 부모나 교사나 정치의 힘보다 종교와 교회의 힘이 필수적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질의와 응답에 앞서 저는 이 나라가 잘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이라는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이 닥치더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은 반드시 이루어지리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이종운 목사: 후보께서 그러한 하나님 신앙을 가지고 계시다면 더 말할 나위가 없겠습니다. 지금부터 여러 목회자들의 질문을 통해 이 후보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전국 초부터 70년대까지는 건전하고 올바른 국민의식 함양을 위해 혹세무민하던 하던 미신적 요소들을 과감히 타파하였는데 80년대부터는 이러한 요소들을 '전통문화'라는 이름으로 다시 만들어 내고 있으며 국가 공공기관에서 행사 때마다 고사를 지내는 전근대적 미신행위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일들을 철폐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후보께서는 미신과 전통문화를 어떻게 구분하시겠습니까?

▶전통을 보고 듣는 현상으로 승화시킨 문화와 전통의 초능력적 효과를 기대하는 미신은 구분되어야 할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는 고사를 지내는 것에 대해서는 거부감을 가지지만 대부분 고사를 지내는 현장에 가보면 미신적 행위라기보다는 일련의 친교적 행사로 치르고 있다는 인상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이런 것을 정부나 국가가 금지하기보다는 이런 행사를 하는 주최측이 스스로 미신적 행위를 삼가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종교계의 화제가 되어 청와대의 불상을 치웠다, 그대로 있다는 논란에서 불교계는 치웠다고 항의하고 기독교계에서는 장로 대통령이 결단하지 못한다고 해서 비난하자 TV방송을 통해 그대로 있음을 보여 주었던 청와대 안의 불상을 본래의 자리인 경주로 옮겨 놓으실 용의는 없으신지요?

▶현재 청와대에 있다는 불상은 일제시대 때부터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그것은

종교의 대상물이 아닌 정원의 장식물 정도의 의미로 방치되어 온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후보께서는 8월 18일 극동방송과의 대담에서 “경제문제는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정신적인 것”이라고 하시며 “근검절약정신 캠페인을 전개해야 할 때”라고 소신을 밝혔는데, 일제시대 때 국채보상운동이나 물산장려운동 같이 경제적 측면이나 정신적, 육체적 건강상의 측면에서 금연·금주운동을 벌일 용의는 없으신지요?

▶저는 정신과 국민의식 개혁이 전국민적 차원에서 재고, 확산되어야 한다고 제창한 바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클린턴 대통령이 청소년에게 담배·술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운동이 시민운동차원에서 적극 추진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다만 청소년이 아닌 성년의 금연·금주 운동까지 정부가 나서서 한다면 이는 문제를 초래할 여지가 있고, 자칫 시민운동의 방향에 정부가 개입하게 되는 상황이 야기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전 국민의 금연·금주에 관해서는 시민운동이나 시민단체의 활동 차원에서 활발하게 추진되었으면 합니다.

▶동아일보가 발표한 여야 3당 후보 신앙명세에서 존경하는 인물로 '마르크스 아우렐리우스'를 적었고 애독서로서는 마르크스 아우렐리우스의 '수상록'을 들었는데 이에 대해 이 후보의 역사인식에 문제가 있다면서 “역사 인물로 그를 존경한다면 그 사람의 사상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전생애를 돌아봐야 한다”고 문제를 제기하는 교계의 반응에 대해 후보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로마 황제였던 마르크스 아우렐리우스는 스토아 학파에 속했었고 기독교를 박해했던 사람입니다. 그의 그러한 치정은 매우 잘못된 것으로 결국 그는 교회박해에 대한 짐을 지고 갔습니다. 저는 그와 철학이 다르고 교회를 박해한 일에는 결코 동의할 수 없지만 제가 그의 수상록을 애독하는 것은 평범한 일상에서도 하기 어려운 자기 성찰을 전쟁의 소용돌이에서 그리고 모략과 중상으로 날이 새는 황실의 생활 속에서도 게을리 하지 않은 점을 존경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신교육 역사상 종교교육을 목적으로 설립된 학교는 수많은 인재양성은 물

론 국가사회에 크게 기여해 왔습니다. 이제 문민정부가 수립되어 국민의 기본적인 자유와 권리를 보장해 가는 이 시점에서 종교교육을 목적으로 건립된 사립학교에서조차 종교교육의 자유를 제한하는 내용을 법으로 개정하려는 시도에 대해 한국기독교총연합회 가입 49개 교단과 한국기독교학교연맹 산하의 3백 11개교는 교육기본법 개정반대 추진위원회를 통해 이는 사학의 건학정신마저 박탈하려는 것으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동 구조조항을 삭제하도록 강력히 청원하기로 하였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한국기독교보 9월 13일자 10면). 이에 대한 후보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현재 국공립학교에서는 특정종교교육이 금지되었고, 사립학교에서는 선택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우리나라는 헌법상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이는 다시 말해 개인의 의사에 반해서 특정종교를 강요하거나 특정종교를 차별화하여 강조하는 것은 헌법의 정신에서 벗어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학교에서의 종교교육이 선택적으로 행해지는 것은 좋으나 일률적인 종교교육을 강요하는 것은 헌법의 정신에 위배된다고 생각합니다.

▶기독교교도소 설립을 위한 교계의 활발한 논의가 지난 4년 동안 있었습니다. 브라질의 휴마타교도소는 지난 10년 동안 재범율 5% 미만이라는 경이적인 통계도 발표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범죄와의 전쟁' 선언보다는 사랑으로 교화시키기 위해 사설 종교교도소제도를 도입할 뜻은 없는지요?

▶일반적으로 민간이 하지 못하는 혹은 하기 어려운 공공제 분야로 치안, 국방, 교도소 교육 등을 들고 있습니다. 흔히 교도소는 민간이 할 수 없고 오로지 정부나 국가만이 할 수 있다고들 여깁니다. 그러나 최근 그러한 고정관념이 깨지고 실제로 미국의 일부 주에서는 교도소를 입찰하여 민간에게 운영을 맡기기도 한다고 합니다. 또 그 효과가 좋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대체로 예산을 이유로 민간이 교화를 담당하지 못한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이 일을 민간이나 종교단체가 감당하는 것에 대해 그 취지와 방향에는 매우 찬성하는 바입니다. 다만 일반 교도소와의 행정적 균형의 문제 등을 생각할 때 그 착수의 시기는 시간을 가지고 고려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순례길에서

베드로 당신은...

고소영(유치부 교사, 11교구)

베드로 당신은 시몬의 이름을 가졌었지만
주님을 만난 후
베드로라 불리게 되었습니다.

베드로 당신은 고기를 낚는 어부였었지만
주님을 만나 변화된 후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었습니다.

베드로의 당신은 예수님이 붙잡히시던 날 밤
주님을 부인했었지만
부활의 주님을 만난 후
주님을 증거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베드로 당신은 물 위를 걷다
두려움과 의심으로 허우적 거렸지만
부활의 주님을 만나 변화된 후
믿음과 확신으로 순교하였습니다.

베드로 당신이 주님을 만나
처음부터 모든 것이 변화되었듯
나도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 서울성경대학 베드로서반을 수강하면서 -

새 예배당 건축을 위한

열린 바자

10월 23일~ 25일

조직

위원장 이종운 목사

지도 김정현 목사
임광식 장로

준비위원장 박철환 장로

기획	이웅선 장로 · 김태기 장로
진행	오정수 장로 · 김상철 장로
시설	정병무 장로
재정	홍정호 장로 · 이남호 장로
관리	민순구 장로
홍보	이영기 장로 · 나희주 장로

◇진행부 위원 = 황정욱 허희철 하영수 윤찬오 노송성
임훈규 김일용 박동춘 박두호 조정식 홍성주 서문석
이관규 이복규 왕경래 박정선 이재원 임상현
◇시설부 위원 = 홍정선 나중영 최형열 김영주 류중관
오형철 이계홍 한길동 김인수 백수남 안의경 이태상
이상호 박두영 서춘식 신용식 이승우 이병생 오광환
김형택 이완형 최용걸

◇지금까지 접수된 주요 물품 = 손목시계(로렉스 등
3점, 골프화, 귀금속(29점), 조끼(91벌),
아동문학전집(1질), 양복티켓(2매), 보온병,
냉풍기, 액자, 장식품, 생활용품...

※ 순례자 컬럼 ※

바울의 고백

우리 인간은 자칫 조그마한 수고
를 한 것 가지고도 마치 큰 일을
해낸 것처럼 떠벌이는가 하면 남의
수고를 제가 한 양 가로채어 영광
을 얻으려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바울도 자기가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은 수고를 했노라고 솔직히
말하고 있다. 그러나 그는 교만해서
그처럼 말한 것도 아니요, 자기 선
전이나 과장으로 말하려 한 것은
아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권능과 뜻
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자신이 하나
님의 도구로 사용되었음을 깨달아
시인하고 있었으며 주를 위하여 수
고할 마음이 생긴 것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만 된 것이라는 것
이다. 또한 그 수고를 참고 충성할
수 있었던 것이나 고난을 오히려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었음도 자기
의 탁월한 역량이나 인내심과 도량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함께 하신 하
나님의 은혜로 가능하다고 거듭 고
백하고 있다.

오늘도 나의 모든 수고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았노라고
담대히 말할 수 있도록 하자

동정

- ◆ 정옥순 집사(1교구 논현다락방)는 신림동에 '활어회 시장'을
개업하고 감사예배를 드렸다.
- ◆ 박동진 · 김신덕 집사 가정(3교구 일원다락방)은 일원동에 '초원분식'
개업하고 감사예배를 드렸다.
- ◆ 홍성기 · 장동임 집사 가정(4교구 서초다락방)은 서초동에 '아카디아
홈패션' 개업하고 감사예배를 드렸다.
- ◆ 김영화 · 권순단 집사 가정(9교구 홍마다락방)은 마장동에 '예지
어린이 집' 개원하고 감사예배를 드렸다.
- ◆ 오늘 봉사자를 위한 점심식사는 홍한규 · 모양순 집사 가정에서
제공했다.

제 12학기 목회자신학세미나

- ④ 10월 6일 - 제 1교시 / 로마서 강해 (이종운 목사)
· 제 2교시 / 교회와 국가와의 관계(김대중 국민회의 대선후보)
- ⑤ 10월 13일 - 제 1교시 / 로마서 강해 (이종운 목사)
· 제 2교시 / 교회와 국가와의 관계(김종필 자민련 대선후보)

이종운 목사 방송설교

기독교방송(HLKY 837KHz)	「성서강해」	화요일 오전 5시 35분 ~ 6시
춘천기독교방송(HLDC 93.7MHz)	「성서강해」	화요일 오전 5시 35분 ~ 6시
극동방송(HLKK 1188KHz)	「생명은 빛으로」	금요일 오전 9시 ~ 9시30분
대전극동방송(HLAD FM 93.3MHz)	「늘푸른 초장」	주일 오후 10시 ~ 10시 45분
아세아방송(HLAZ 1566KHz)	「라디오 강단」	주일 오전 8시 30분 ~ 9시
	「새벽의 강단」	금요일 오전 4시 20분 ~ 4시 50분

서울주간기도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1. '97 비전2000운동을 위해
2. 제 12학기 목회자신학세미나와 한국교회의 갱신을 위해
3. 새 예배당 건축을 위한 열린 바자를 위해
4. 민족복음화와 세계선교의 산실이 될 예배당 건축을 위해

예배 및 집회

구분	시 간
주일 예배	I부 오전 9시
	II부 오전 11시
	III부 오후 2시
찬 양 예 배	주일 오후 5시
수요 예배	I부 오전 11시
	II부 오후 7시
금요기도회	오후 9시
새벽기도회	매일 새벽 5시 30분

교회위치

